
2023년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기 간 : 2023.06.03.(토)~2023.06.10.(토)

방문지 :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참여자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원 22명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목 차

I. 연수개요	5
1. 연수 개요	7
2. 연수단 명단	8
3. 연수 일정	9
II. 연수내용	11
1. MDAA : 다문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13
2.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운영	19
3. 노던센터 :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지원	25
4.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33
5.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의 집대성 ..	39
6. 게코 : 환경 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향한 시민 연대 활동	46
7.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 : 수용소를 리모델링한 체험형 여성사 박물관	51
8.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 : 토착 생물을 만나는 특별한 보호소	52
9. 퀸즐랜드 주립박물관 : 도시 중심에서 만나는 자연·과학 유산	53
III. 현지워크숍	55
1. 1차 워크숍	57
2. 2차 워크숍	59
IV. 만족도평가	63
V. 참고자료	67

2023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I. 연수개요

1. 연수 개요
2. 연수단 명단
3. 연수 일정

1. 연수 개요

- ☐ 명칭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 ☐ 주관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 ☐ 목적 : 호주 여성 가족 정책 및 활동 선진사례 연수
- ☐ 기간 : 2023년 6월 3일(토) ~ 6월 10일(토), 6박 8일
- ☐ 지역 : 시드니,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 ☐ 인원 : 22명
- ☐ 방법 : 현지기관 방문 연수, 현지 워크숍, 현장학습

[기관방문]

지역	연수기관	주요내용
시드니	블랙타운시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빅팀 센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노던 센터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지원
	MDAA	다문화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방안
브리즈번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의 집대성
골드코스트	게코 환경 단체	다양한 활동을 주최하는 여성 지역환경 보전 운동단체

[현장학습]

지역	기관명	주요내용
시드니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	수용소를 리모델링한 체험형 여성사 박물관
골드코스트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계를 보호하며 이용하는 방안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립 박물관	도시 중심에서 만나는 자연·과학 유산

2. 연수단 명단

□ 참가자 22명, 인솔자 1명

	소속	직책	성명
1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민○○
2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무관	이○○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	임○○
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
5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
6	광주여성가족재단	과장	김○○
7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정○○
8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정○○
9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진○○
10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성○○
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본부장	이○○
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
13	울산복지진흥원	본부장	박○○
14	울산복지진흥원	팀장	이○○
15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박○○
1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센터장	이해응
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여진
18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
19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송○○
20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
21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관리6급	나○○
22	충북여성재단	팀장	이○○

• 인솔자: 노○○ 전문위원

3. 연수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비고
제1일 6.3 (토)	인천 시드니	KE0401	18:55 06:15	○ 인천공항 출발 ○ 시드니공항 도착	10시간 20분
제2일 6.4 (일)	시드니	전용버스	오전 오후	○ (현장학습) 하이드파크병영박물관 ○ 제1차 현지워크숍	
제3일 6.5 (월)	시드니	전용버스	오전 오후	○ (기관방문1) MDAA ○ (기관방문2) 노던 센터 ○ (기관방문3) NSW 빅팀 센터	
제4일 6.6 (화)	시드니	전용버스	오전 오후	○ (기관방문4) 블랙타운 시 ○ (문화체험) 오페라하우스	
제5일 6.7 (수)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VA917 전용버스	08:00 오후	○ 브리즈번 이동 ○ (기관방문5)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 (문화체험) 호타 박물관 ○ 골드코스트 이동	1시간 30분
제6일 6.8 (목)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전용버스	오전 오후	○ (기관방문6) 게코 ○ (현장학습) 커럼빈야생동물보호구역 ○ 제2차 현지워크숍 ○ 브리즈번 이동	
제7일 6.9 (금)	브리즈번	전용버스	오전 오후	○ (현장학습) 퀸즐랜드 주립박물관 ○ (문화체험) 리저널 보태닉 가든	
제8일 6.10 (토)	브리즈번 인천	KE408	08:40 15:00	○ 브리즈번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9시간 55분

2023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II. 연수내용

1. 다문화 가정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MDAA
2.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3.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지원 노던센터
4.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블랙타운 시
5.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의 집대성 퀸즐랜드여성역사협회
6. 환경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향한 시민 연대 활동 게코
7. 수용소를 리모델링한 체험형 여성사 박물관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
8. 생태계를 보호하며 이용하는 특별한 방안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
9. 도시 중심에서 만나는 자연과학유산 퀸즐랜드주립박물관

1. MDAA : 다문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



다문화 장애 옹호 협회
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MDAA)
+61 1800 737 732
<https://mdaa.org.au/>
mdaa@mdaa.org.au

방문 연수

2023.06.05. 10:00~

□ 다문화 배경 가정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개인 지원 활동

- 다문화 장애 대변협회(Multicultural Disability Advocacy Association, MDAA)는 장애를 가진 뉴사우스웨일즈 시민과 구성원을 지원하는 최고의 단체로, 특히 문화적·언어적 다양성(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비영어권 배경의 사람들(non English Speaking, NESB)에게 집중 지원하고 있다.
- 1992년 비영어권 배경의 사람들을 모으는 "Lets Speak Out Together" 포럼을 전신으로 시작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하여 다문화 배경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 호주 전체 인구의 약 18%가량이 장애가 있으며, 장애인의 약 25%가 다문화 배경이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과 신체적 불편함이 교차 되어 고충이 크다. 때문에 265만명 가량의 간병인이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0% 수준에 이른다.
- 개인 지원 활동의 필요성은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비영어권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기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협회는 장애인에게 옹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포용과 인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MDAA의 활동 노하우



MDAA 활동 사진

MDAA의 비전

- MDAA는 모든 배경과 출신,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 받으며 소속감을 느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타 문화권 출신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더 어렵고 반대로 도움을 주고자 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 정책과 역량 강화, 네트워크 발전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 보호 신청이나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지원과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를 돕거나 호주의 정책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 개인적인 문제의 단순한 해결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와 보고서를 통한 정책 수정을 제안하기도 하며,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권리 옹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배경의 장애인들이 권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문제와 연관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 최근 정부로부터 새로운 지원 체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교통, 주거, 이민, 기술, 서비스 접근성으로 분류된 5개 중요 분야에 대해서 현재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지원을 외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 교외 지역의 주민들과 중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들을 논의

Some of the issues raised in other regions:

- Transport
- Housing
- Immigration
- Technology
- Access to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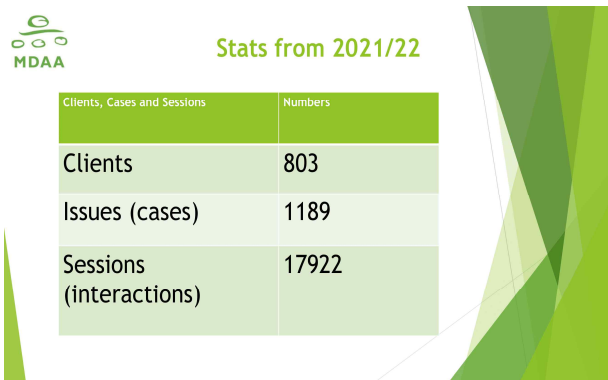


중요 분야로 선정된 5개 항목

하고 개인적인 해결을 돕거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실제 예시로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주민간의 협상을 주도했다.

-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대기를 10년 이상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체 활동이 현격히 제한되는 1급~2급 장애인들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여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상을 주선하고 있다.

- 2021~2022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803명, 이들을 돕기 위해 수집된 사례가 1189건에 이르며, 단순 안내와 타 서비스로 연결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면 179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매달 75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33명의 장애인에게 공식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기간의 통계에서 보면 가장 많이 제공된 외국어는 아랍어이고 그 뒤로는 북경어(중국어), 베트남어, 힌디어, 피지어 등이 있다.



2021~2022 서비스 제공 통계

-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TIS'라는 번역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본인이 구사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언어로 민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원하고 있다.
- 호주에는 네셔널 디스터빌리티 인슈어런스 스킴(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이라는 국가장애보험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장애인들이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MDAA 또한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디스어빌리티 겟 어웨이(Disability get away)라는 제도도 잘 활용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지원정보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해 아니라 호주 전체 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서비스 오스트리아(Service Australia)가 가장 유용한데 의료복지와 어린이 지원 등 비장애인 대상 복지와 장애인들이 건강보험급여, 어린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DAA는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및 센터들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있다.

질의응답

Q NDIS의 경우 국내 도입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지원요건이 무엇입니까?

A NDIS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65세 미만의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장애가 있어야 한다. 중대한 장애의 기준은 신체 기능적 장애로 인한 이동 및 자기 돌봄에 제약이 있거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0세에서 6세까지는 발달 장애, 지체 장애의 초기 증상이 있거나 진단이 있으면 자격을 얻습니다. 장애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장애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여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산정합니다.

Q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A 여성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MDAA는 비영리 단체로 주로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네트워크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2주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어려움이나 변화들을 공유하고 의제를 설정해 논의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실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수시로 전화를 거는 스토킹 범죄 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해 온 성과로 최근 정부에서 형법 개정이 통과되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어 해당 기준에 맞게 처벌 될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 네트워크에서는 국제 여성의 날 행사 같은 여정을 주제로한 행사들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Q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습니까?

A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MDAA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지역사회 라디오, 지역 뉴스 레터를 통한 바이럴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에도 참여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 **다문화 배경 장애인 지원 프로세스 점검과 개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문화 배경 가정 장애인과 가족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은 사회적 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비율은 2%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숫자로는 109만 명에 이르며 현재 청소년 중 다문화 배경 청소년 비율은 3%로 다문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 대비 장애율을 10% 정도로만 추산하더라도 현재 약 10만 명의 다문화 배경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배경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MDAA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영어권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MDAA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의 주거 보호 신청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와 보고서를 통해 정책 수정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국가 장애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장애인들의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DAA의 활동에서도 NDIS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배경 장애인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장애인 특히 문화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 배경의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NDIS의 사회적 포용성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부로서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배경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사회의 포용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배경 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세히 분석해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장사진



△ MDAA측 환영인사를 받는 연수단



△ 연수단 소개를 하고 있는 정순천 원장



△ MDAA의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줄리



△ 기념품을 전달하는 정순천 원장



△ 연수 종료 후 단체 사진

2.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운영



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

Victims Services Centre

Marsden St, Parramatta NSW 2150

+61 1800 633 063

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vs@dcj.nsw.gov.au

방문 연수

2023.06.05. 13:30~

□ 여성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 보장 시스템 운영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호주 남동부 해안에 있는 주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해안가, 국립공원, 도심까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처음 도시를 꾸린 지역으로 호주 이민역사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 주요 도시는 시드니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와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이다. 금융, 관광, 제조, 농업과 같은 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체계를 자랑하며 호주 전체의 경제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08만 명으로 더 많다.
- 주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의사 결정 역할 참여, 급여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해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빅티م 서포트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담, 금전적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 단순 폭행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대 노예 피해자로 표현되는 속칭 가스라이팅 피해자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위치

□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운영



-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제도이다.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피해자 서비스 부서는 NSW주 지역 사회 및 법무부에 속해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됨 따라서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NSW의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권리 현장을 홍보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폭력 범죄의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입은 범죄는 가정 폭력(여성, 아이 대상), 성폭행, 폭행, 강도 등이다. 폭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장례비, 특수 청소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 현재 가장 높은 빈도는 가정폭력으로 연 150,000건이 신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정적 지원은 먼저 가해자와 떨어져 거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과 보안 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상담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은 전문 상담사를 배정받아 범죄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 세션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고 있다.
- 재정적 지원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이다. 폭력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정적 지원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긴급 지원 패키지(Immediate Needs Support Package)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안 카메라 및 문 설치, 가전제품 등을 조합하여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소지품 분실, 의료비, 법원 참석 절차 비용 등 최대 3만 호주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는 인정정보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

로그그램은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 및 혜택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말한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인정 보상은 피해자들이 재활,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가 그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공된다. 수당뿐 아니라 법률상담 우선권, 전문 상담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 인정보상은 피해자와 그들이 의탁하는 부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만5천 호주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미수에 그친 폭력사건이라도 일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피해자 지원 제도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데 신체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애견 법정 동반 프로그램 (Canine Court Companion Program)이다. 피해자의 법원 출석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치료견 팀은 매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90분 동안 지명된 법원에 참석한다. 범죄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훈련반 법정 입장 대기 중인 치료견의 모습은 치료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강아지와 포옹하거나 쓰다듬을 수 있다. 치료견과의 상호 작용은 심장 박동수를 낮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언어 및 기억 기능을 향상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과학적 입증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및 관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회복과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대상자,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혜택, 필요 서류까지 수록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질의응답

Q 아동의 경우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호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A 원가족으로의 복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지만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원가족의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이루어집니다만, 그에 대한 목표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 아동 보호를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며 원가족 복귀에 관한 결정은 아동의 상황,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등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양육을 모색합니다. 친족 보호, 임시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이나 후견인 지정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Q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필요한 지원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A 보호자와 분리가 결정된 후에는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아동 복원 서비스(Child Restoration Services)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 앞서 진행한 위험 평가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원가족 복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호자의 능력 향상과 관계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복원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을 개선합니다. 관계 개선 교육과 심리상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재정, 식품, 의료 등의 요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사점

▷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

—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은 폭력 사건 대응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문제에 대처한다.

—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도 피해자 중심 시스템의 구축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법적인 절차와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ganz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 도움, 안전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복은 도와야 한다. 피해자들은 한 번의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따라서, 한국에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회복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3. 노던센터 :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지원



노던 센터

The northern centre

3 Anthony Rd, West Ryde NSW 2114

+61 2 9334 0111

onnect@tncinc.org.au

thenortherncentre.org.au/

방문 연수

2023.06.05. 15:30~

□ 강력한 네트워크로 다져진 지원협력 체계

- 1982년 설립된 노던 센터(The Northern Centre)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자선 단체)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노던 센터는 ‘모두가 속할 수 있는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존중, 청렴, 혁신, 협력, 관용을 핵심 가치로 협력을 통한 지지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가족, 번영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 노던 센터의 민관 협력 통합 서비스 방식

- 노던 센터의 가족지원팀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 자신감을 갖고 양육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인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가족 전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별 사례 관리, 상담, 자녀 양육 프로그램 또는 그룹 놀이 등이 포함된다.
- 22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domestic violence service)는 모든 가족이 폭력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와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을 포함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 없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이다. 이때 피해자의 상황에 따른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 기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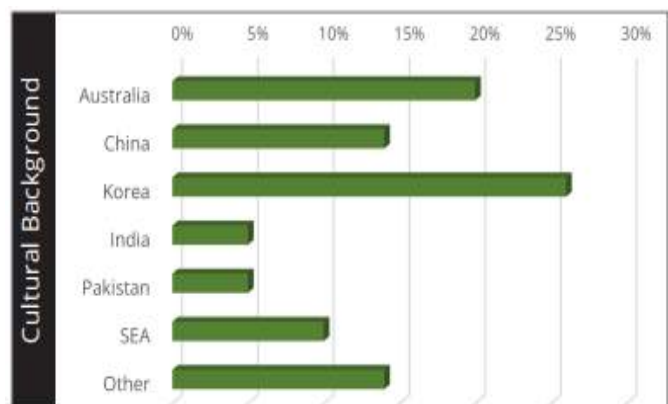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되는 데 3개월 정도가 평균적인 지원 기간이고 법무부, 은행, 중국 자선 재단, 호텔,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 노던 센터는 자체 사업 외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관계가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유명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가정 및 조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노숙자를 위한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의료혜택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조연 및 연관 프로그램을 연결 받을 수 있다.

[대표 협력기관]

로고	기관(기업)명	지원 분야
	Hunt&Hunt Lawyers-Women's Legal Clinic	여성 법적 지원
	Rotary Club of Ryde	치매
	epic-Empowering Parents in Crisis	청소년 양육
	Elizabeth Lee-Psychology	정신건강
	Odyssey House	알콜·약물 등 중독

- 노던 센터는 헌트 & 헌트 법률사무소(Hunt & Hunt Lawyers)와 협력하여 무료 여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양육권 문제, 자녀지원, 재산분할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비자 상태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열려 있다. 비영어 사용자를 위해 필요 시 통역



△ 노던센터를 통한 법률사무소 상담 언어 비율

서비스도 제공하며, 법률상담을 위한 시간 동안 무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가 편안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6주부터 8주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토요일과 저녁에 운영하기도 한다.

12

OUR ACHIEVEMENTS IN 2022

- ✓ SafeT launched in January 2022, achieving our annual KPIs within six months and Macquarie University undertaking the pilot evaluation.
- ✓ We increased engagement in community events as we emerge out of COVID.
- ✓ Sector Executive Group (SEG) has grown to include 18 organisations (from the original 8).
- ✓ We continued contributing to growing sector workforce capacity with appointment of two new Master of Social Work graduates.
- ✓ Board renewal with the appointment of Graham Low Treasurer, Benjamin Keyworth and Kate Curnow-Wright.



- TEI(위기가정초기대응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0~5세, 4~10세, 10~18세로 구분되어 완전한 청소년기 이전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감정적인 연결을 통한 육아를 할 수 있는지 교육하면서 실제 육아 방법과 노하우, 대화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COVID-19 대유행 시기인 2022년에도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에 300가정 이상이 교육에 참여했다.

32

COMMUNITY AND SECTOR ENGAGEMENT

As the restrictions for COVID lift, we have been able to start getting out and about more this year - connecting with community and the sector.

We attended many events - the Lachlan's Line Neighbour's Day, Ryde LAC induction of the new police as they launch into their police officer careers, the Grandstand Rugby League campaign soccer event at Macquarie University, supporting the Ryde Hunters Hill DV Committee and the Lisa Harnum Foundation Purple Nail Tribe and another Strengthening Partnerships networking event at TNC with our collocated and other sector partners.

It is brilliant to be out and about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and the sector and we look forward to a further opening up of events as we move into the new year.



TNC i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following sector meetings:

Multicultural Networks	Lower North Shore MC Network
	Hornsby and Ku-ring-gai MC Network
	Ryde Intercultural Network
DV Networks	Northern Sydney Korean Network
	NSLHD CALD Consumer Advisory Group
	Lower North Shore UV Network
Child Protection Interagency	Ryde and Hunters Hill DV Committee
	Hornsby and Ku-ring-gai DV Committee
	Adolescent Interagency Meeting (AIM)
Child & Family Interagency	Ryde and Hunters Hill
	Hornsby and Ku-ring-gai
	RHH Youth Interagency
Youth Interagency	
Homelessness Networks	Northern Sydney Housing & Homelessness Services
Other	Economic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City of Ryde)
	Social Inclusion Advisory Committee (City of Ryde)
	Macquarie Park Forum (City of Ryde)
	Status of Women Advisory Group (SoW)
	TEI Sector Development Forums
	The Sector Executive Group (SEG) - Chair
	FAMS CEO Forums
	FAMS Worker Forums
	WRCC Tenant Meeting

33

- 여러 프로그램 중 핵심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주택 지원 대한 프로세스이다. 2022년 부동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임대 위기로 주택 지원요청이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적합한 주택을 가졌던 가정들이 처음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 노던 센터는 시드니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서비스(Housing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노숙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현 거주지 내에서 머무르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총체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 주택에 관련한 문제들은 조기에 개입하여 악화를 막는 것이 노숙자 발생을 방지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어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지원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원이 가능한 숙박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높아 평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총 251명의 노인, 여성 자녀, 다문화 배경 주민들을 지원했다.



- 노던 센터는 자체 자금으로 'SafeT'라는 이름의 시범 프로그램을 2022년 1월에 시작했는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폭력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겪은 위기 이후에 여성과 가족들을 커뮤니티를 활용해 지원하고 기존 서비스의 큰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피해 탈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받으며 폭력 없는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SafeT' 프로그램은 총 5단계의 초기조치와 후속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계인 신청 및 평가단계에서 피해 여성 혹은 아동은 Safe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 신청을 하게 되고 해당 신청자들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때 통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위험도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며, 개인의 상황과 위험 요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를 통해 지원과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별도로 구성된 위기 대응 팀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제공한다. 위기 대응 팀은 법적인 문제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한다.
- 긴급한 대응이 완료되면 상담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afeT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여성과 아동들에게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공인받은 심리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외부 노출이 제한된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한다.
- 의학·심리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지와 상태에 따라 경제적 재건 및 자립력 강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단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교육, 재정 지원, 자립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지원과 협력을 도모한다. 커뮤니티 교육은 학교, 지역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질의응답

Q 미니 맥시(Mini-Maxi) 플레이그룹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A MDAA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Mini-Maxi playgroup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The Northern Centre에서 조직되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Mini-Maxi playgroup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Mini-Maxi playgroup 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며 놀이 그룹 세션 중에 논의된 주제를 상기시켜주는 리소스 역할을 합니다. Mini-Maxi 놀이 그룹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동년배들과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탐색하며,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기술, 창의성, 그리고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을 줄 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Q 홈페이지에 영어 외 한국어와 중국어가 지원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까?

A 호주 전체 인구 구성 중 영어권 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정도입니다. 다만 인도와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이 높고 오히려 인구 비중이 높은 국적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 비중이 높지도 낮지도 않고 문화적 이유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덕분인지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 피해자로 구제를 위한 연락도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는 비자 문제 거주 문제 등 다양한 분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꼭 범죄 피해 비율이 높아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시사점

▷ 지원 기관 및 프로세스의 유기적인 연결

－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 프로세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던센터는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던센터는 정기적인 회의와 협업을 통해 서로의 목표와 역할을 이해하고 조율한다. 또한,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노던센터의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각 기관의 유기적인 연결은 프로세스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 각 지원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프로세스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때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중복된 작업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며, 문제 해결에 대한 빠른 대응과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원 기관과 프로세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작업이다.

▷ 접근 가능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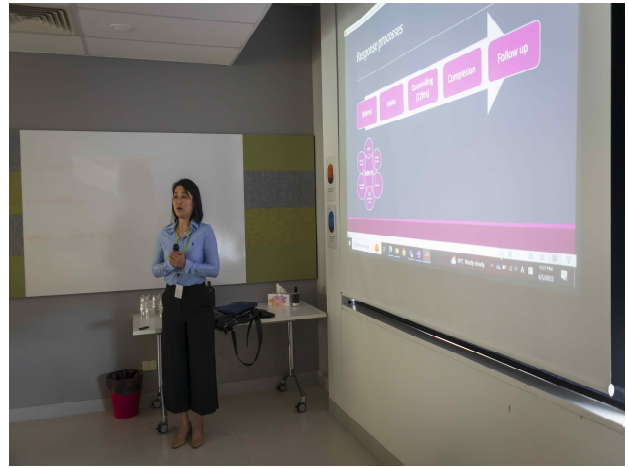
－ 노던센터는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연구 및 구조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도움을 준다.

－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통해 현재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 보고서, 정책 권고 사항, 사례 연구 등을 제공하고있고,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개최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최신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작용을 한다.

현장사진



△ 상담사로 활동하고있는 에이미의 기관소개



△ 엘리자벳 리 상담사의 브리핑



△ 연수 내용 경청 중인 연수단



△ 질의 응답

4.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블랙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

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

www.blacktown.nsw.gov.au/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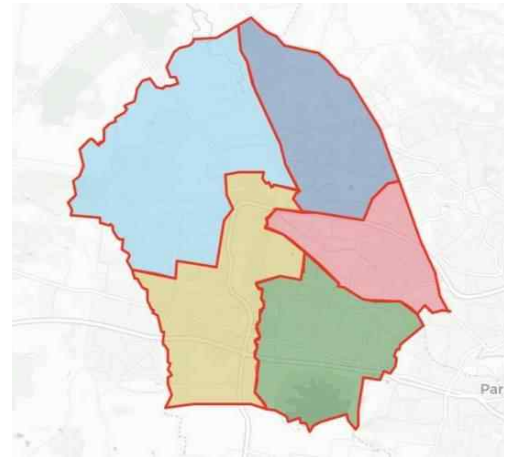
Council@blacktown.nsw.gov.au

방문 연수

2023.06.06. 10:00~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0,997명 중 200,000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재 부시장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를들오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 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



△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예정작

□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 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 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 22년 프로젝트 모습

질의응답

Q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 무엇입니까?

A 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천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습니다. 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A 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Q 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과 문제에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Q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됩니까?

A 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 됨. 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 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도있다. 그리고 취약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조부모에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 ▷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 －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 －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
 - －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사진



△ 환영인사를 전하는 블랙타운 주정부 관계자



△ 연수 내용 경청 중인 연수단



△ 연수 내용 경청 중인 연수단



△ 질의 응답



△ 연수 종료 후 단체사진

5.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의 집대성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

Queensland Women's Historical Association

35 Jordan Terrace, Bowen Hills QLD 4006

+61 7 3252 2979

www.miegunyah.org/

방문연수

2023.06.06. 10:00~

□ 브리즈번과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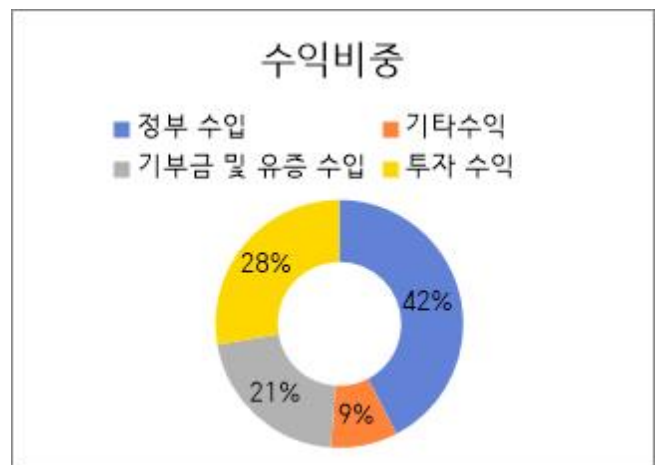
- 원래 브리즈번 지역은 최초의 민족 부족, 특히 유가라(Yugara), 터벌(Turrbal) 및 관다무카(Quandamooka) 부족들에 의해 점령된 땅이었다. 1838년 자유 이주민들의 유입 이후 퀸즐랜드는 1859년에 자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1년 호주 연방 정부에 흡수되었다.
-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는 퀸즐랜드 여성과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역사 및 물품의 주요 보관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1886년대 부유층 가족을 위해 지어진 주택을 1966년에 구매했으며 1967년에 웬 힐스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건축 당시 퀸즐랜드 고급 주택의 모습으로 복원을 시작하여 Miegunyah House Museum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복원 장소였던 서쪽 베란다는 43년만인 지난 2010년 복원을 마쳤다.



△ 2010년 복원 완료된 서쪽 베란다 전경

- 협회는 퀸즐랜드 초기사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의 기관으로, 초기 퀸즐랜드 식민 시대 가족들과 역사에 관련된 물건, 가구, 문서들을 사람들에게로부터 수집한다. 이 시기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복 및 문서, 가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 협회의 운영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회원 중 2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Miegunyah House Museum의 안내원으로 활동하는데 이 안내원 역할을 지역내 학생들이 맡기도 한다.
- 1950년 설립된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QWHA)는 선도적인 역사 학회 중 하나이며 퀸즐랜드의 개척 역사에 대해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호주, 특히 퀸즐랜드 여성의 역사와 업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1967년 웬 힐스의 문화재로 지정된 미에구냐 하우스(Miegunyah House)를 인수하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에구냐 하우스를 인수하기 위한 보증금 13,000달러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했다.

- 협회와 미에구냐 하우스 박물관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40명에 이른다. 특별한 점은 박물관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의 지원 외에도 수익모델이 존재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운영자금 중 일부는 정부의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만, 대부분의 수입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입장료, 투어 및 다과 제공 등으로 충당하여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 22년 퀸즐랜드 여성 역사 협회 수익 비중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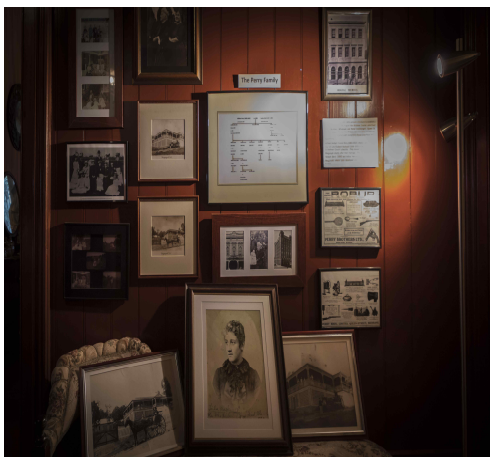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15,000점가량의 유물과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기부로 획득했다. 여성의 기념비적 의상,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가구에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에도 미술품, 사진 등도 전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한 여성 역사 사료 및 유물 컬렉션 보유



△ 미에구나하우스 특별 전시실 내부

-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의 주요 목적은 미에구나 하우스와 컬렉션을 통해 여성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고 해석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가 퀸즐랜드의 개척 생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협회의 다양한 컬렉션은 15,000여 개의 유형자산과 기록 자산으로 구분된다. 가구, 예술품 및 가정용 도구 등 컬렉션 대부분은 미에구나 하우스의 특설 전시실에 전시된다. 의상과 같은 손상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며 특별전이 있을 때 옮겨져 전시된다. 수집품은 대부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당시 지배적인 문화집단인 영국 정착민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다.

- 협회의 컬렉션 선정은 역사적 사료로서 가진 가치의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퀸즐랜드 박물관의 고위 큐레이터를 역임한 담당자가 해당 경험과 퀸즐랜드 컨트리 여성 협회, 자수 협회와 같은 유사한 컬렉션의 중요성 평가를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 수집되어있는 사료들은 보통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물건들인데, 이는 실제로 해당 물건들을 사용하던 주민의 후손들이 해당 자료들을 버리거나 팔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여 보존하는 퀸즐랜드 역사협회에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들이 많다.
- 이렇게 수집된 물건들은 컬렉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의 역사 기록물과 함께 여성 역사에 대한 서사를 구성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 하우스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발전시킨 여성의 역사



△ 미에구냐 하우스 박물관 전경

- 협회의 광범위한 자료는 학자와 일반인이 모두 열람 및 관람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된다. 호주의 여성 역사, 정책 변화, 여성들의 중요한 기여와 관련된 사건과 주제들을 다루는 5개의 강연회를 매년 개최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토론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 미에구냐 하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월간 강의 외에도 정기적인 전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대부분 역사 컬렉션을 기반으로 하는데 최근 200년간의 웨딩 패션을 보여주는 'The Bride Wore White'와 1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자료를 다루는 'We Remember'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 외에도 월크 컨벤션과의 협업, 가상 투어 등을 통해 퀸즐랜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기여와 그들이 만든 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질의응답

Q 여성들이 호주로 이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여성들이 호주로 이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몇몇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호주는 영국 제국의 식민지로 개척되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로서 호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이 중에는 농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유치하는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농지를 경영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식민지 개척에 참여하였습니다.

1850년대에 호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금광순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주자들이 호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금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을 뒤에 두고 독립적으로 호주로 이주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정 경제와 직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여성의 노동력 수요가 높아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호주는 산업화와 동반되는 고용 기회와 잠재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하였습니다. 반대로 호주는 가족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결혼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가족을 통한 이주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Q 대표적 농업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A 과거 호주에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위치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초기 호주 농업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도움을 위한 노동에 주로 참여하였으며, 남성들이 농업 생산의 주요 일꾼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성역 구분과 성별 역할 분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농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주로 가정 경제를 지원하거나 가족농장에서 가축 관리, 가금류 양육 등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낮은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남성이 농경지의 주인이 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창출력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성역 구분과 성차별에 기인합니다. 여성들은 가족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는 변화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농업노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호주 농업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농업 생산과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 여성 활동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 －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역사와 기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여성 역사를 연구, 보존 및 홍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의 역사와 업적을 조명하고 교육적인 활동과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 －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여성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회나 관련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재무적 자립 모델 구축 지원 제도 도입
 - － 퀸즐랜드 여성역사협회는 수입모델을 다양화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무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하고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입장료 등을 유료 서비스나 이벤트로 제공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의 다각화와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무 자립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사진



△ 환영인사를 받고있는 연수단



△ 연수 내용 경청 중인 연수단



△ 연수 종료 후 단체사진

6. 게코 : 환경 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향한 시민 연대 활동



환경단체 게코

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

Whilean St. Currumbin QLD 4223

+61 7 5534 1412 139

방문연수

2023.06.06. 10:00~

□ 자원봉사자 주도의 민관협치 구축

- 게코(Gecko)로 알려진 게코환경협의회 법인(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은 호주 퀸즐랜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골드 코스트와 힌터랜드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에 전념하고 있다.
-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부 기관 및 기타 환경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회원, 자원봉사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게코의 활동은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활동으로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생물다양성 보존: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를 수행하고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종의 보존을 도모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및 기타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교육: 지방,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사회 행사를 시행한다.

커뮤니티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한다. 기관 및 비즈니스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 추구

- 골드 코스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게코에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싶거나, 봉사하기를 원하거나, 단순히 동료를 찾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의 통일 요소는 모두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게코는 창립 초기부터 많은 협력 활동을 해왔다. 환경보호 캠페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은 ‘GeckoEd’이다. 학교와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에게 방학 기간 중 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간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수했다. 이 외에도 Clean Up Australia Day, Gold Coast Green Week(Green Day Out을 기반으로 함)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 보호 사례에 대해 연례 환경상을 수여하는 등 선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 게코는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고, 골드 코스트에서 특별한 지식을 선보이는 월간 행사인 ‘연사의 밤’을 개최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GeckoEd 활동모습

시사점

▷ 새로운 지역 사회 참여 모델

게코환경협의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를 통해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을 추구한다. 게코환경협의회는 자원봉사자, 회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참여 등의 부문에서 활동을 진행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게코환경협의회는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등의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코환경협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수요자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

－ 환경 보호 교육은 여성과 가족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여성 및 가족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현장사진



△ 환영을 받고있는 연수단



△ 브리핑을 경청하는 연수단



△ 브리핑을 경청하는 연수단



△ 교육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는 연수단



△ 각 기관 대표들과 기념품 전달식 사진



△ 연수 종료 후 단체사진

7.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 : 수용소를 리모델링한 체험형 여성사 박물관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

Hyde Park Barracks

Queens Square,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61 2 8239 2311

현장학습

2023.06.04. 14:00~

□ 이민자 수용소 건물의 얽힌 여성사를 활용한 전시 박물관

- 시드니의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Hyde Park Barracks, Sydney)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의 시드니 시 지방 정부 지역에 있는 시드니 중앙 비즈니스 지구의 맥쿼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에 위치한 문화유산이자 박물관이다.
- 1819년 교도소로 건립된 200년이 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축가 프랜시스 그린웨이에 의해 설계되었다. 단순 감옥의 형태가 아닌 수용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행동이나 탈출을 막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여성이민자, 노약자, 빈곤 여성 등의 숙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 1848년부터는 여성이민국으로 사용되어 2000명 이상의 고아 소녀들의 숙소로 이용되었고, 이후 40년 동안 수천명의 취약 여성(범죄자 가족, 고아원 출신 소녀, 거주지가 없는 여성 청년노동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 현재는 '병영'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컬렉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과거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전시를 소장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업적과 기여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함께, 여성들이 전쟁과 군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은 여성들의 군복과 군사적인 장비에 대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여성들이 어떤 의류와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했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훈련과 업적에 대한 사진과 문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8.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 : 토착 생물을 만나는 특별한 보호소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
Currumbin Wildlife Sanctuary
28 Tomewin St,
Currumbin QLD 4223
+61 7 5534 1266

현장학습 2023.06.08. 12:00~

□ 토착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며 즐거움을 전달하는 동물 보호센터

-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호주에 위치한 동물원형태의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보호구역은 1947년 설립된 이후 70년 이상 토종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지역 토착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최근 75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및 해외 방문객 모두에게 독특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서 중요한 목표를 세웠다
-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호주 내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코알라, 캥거루, 왕 파랑새 등 호주 특유의 동물들도 포함된다. 이 보호구역은 동물들의 자연적인 서식지를 재현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관찰하면서 그들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동물과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물들의 복원과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보호 활동은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커럼빈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방문객들에게 야생동물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연과 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호주 특유의 동물들과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탐험하면서, 보호구역이 추구하는 환경 보전과 교육적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9. 퀸즐랜드 주립박물관 : 도시 중심에서 만나는 자연·과학 유산

퀸즐랜드 주립 박물관

Queensland Museum

Grey Street &, Melbourne St

South Brisbane QLD 4101

+61 7 3153 3000

현장학습

2023.06.09. 13:00~

□ 접근성 높은 자연·과학·문화유산 전시

- 브리즈번 시내에 위치한 퀸즐랜드 주립 박물관은 퀸즐랜드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 과학에 관련된 전시품을 통해 인류의 업적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물과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퀸즐랜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 박물관은 퀸즐랜드 문화 센터에 위치하며 다른 주요 예술 및 문화 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지적 탐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브리즈번의 중심지인 Brisbane CBD에서 강을 건너 편리하게 위치하여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또한, 이 박물관은 원주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그리고 태평양 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표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자들은 풍부한 퀸즐랜드 전통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그들의 전통, 예술, 그리고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자연사에 대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방문객들은 선사 시대의 거대한 생물들의 표본이나 화석, 실물 크기의 전시물을 관람하고 공룡의 세계를 탐구하며 퀸즐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동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물은 퀸즐랜드 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생태계와 지질학적 구조를 배울 수 있도록 배치되어있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및 과학 발전에 대한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어 방문자들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술 혁신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박물관은 교육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모든 연령대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2023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III. 현지워크숍

1. 1차 워크숍 (시드니)
2. 2차 워크숍 (브리즈번)

1. 1차 워크샵

- 일시 : 2023.06.04
- 장소 : 시드니 카페 퀸스(cafe Quennss)
- 내용 : 참가자간 인사 및 연수 진행 순서, 주의사항 공유
 - 참가자 간 인사
(참여기관 소개 및 본인소개)
 - 연수 계획 공유
 - 이번 연수는 호주의 다문화, 여성 역사, 여성주도 시민단체, 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드니에서 4개 기관, 브리즈번 1개 기관, 골드코스트1개 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
 -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을 고려하여 일정을 여유롭게 구성했음
 - 이동 동선과 연수 종료 후에 남는 시간동안 호주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호주 시내에 호텔을 구하느라 아주 좋은 호텔은 아니니 양해 부탁
 - 내일 6/5 오전부터 다문화 배경 장애인을 지원하는 공식 단체인 MDAA와의 미팅을 진행하고, 바로 노던센터로 이동해 2개 기관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실제 사례를 연수 할 예정임. 가장 연수 시간이 긴 날로 여행 피로가 가시기 전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연수이니 집중이 필요함.
 - 6/6 에는 주 정부 기관의 의회를 방문하여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등을 배우고 역할에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임
 - 6/7에는 브리즈번으로 이동하여 지역고유의 다양한 여성 역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수집한 역사적 자료들을 이용해 여성 역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퀸즐랜드여성역사협회를 방문할 예정
 - 이후 호주 최고의 석양을 자랑하는 골드코스트로 이동 숙박 예정
 - 6/8에는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도하여 운영하고있는 환경운동단체 게코를 방문하여 교육방법, 운영현황 노하우 들을 배울예정
 - 마지막 날인 6/9에는 지역 여성 활동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여성들의 캠페인을 둘러보고, 주립 박물관을 관람할 예정
 - 주의사항 및 요청사항
 - 이번 연수는 공식적인 연수 일정이니 단정한 차림의 복장,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고 명함과 원할 경우 기관소개 팸플릿, 방문 기념품을 준비해야 함
 - 현지 최저기온 8.8℃, 최고기온 17℃로 한국의 가을(9-10월) 날씨와 비슷함
 - 수요일 오전 브리즈번행 중간항공과 귀국편 항공 모두 이른 아침에 탑승 해야 하므로 컨디션 관리와 집합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현장사진



△ 워크숍 준비중인 연수단



△ 기관 및 자기소개 중인 연수단



△ 기관 및 자기소개 중인 정연정 대표



△ 기관 및 자기소개 중인 정순천 원장



△ 기관 및 자기소개 중인 정정옥 대표

2. 2차 워크샵

- 일시 : 2023.06.08
- 장소 : 골드코스트 커럼빈 야생동물보호센터 연회장
- 내용 : 방문연수 종료 소감 공유

□ 민연경 연구위원 (강원)

내년도 회장직을 역임하게 될 지역으로서 내년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번 연수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는 방문기관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연수 과정에서는 방문기관 연수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수는 보다 더 참가자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연수 전체로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연수 지역의 문화의 차이를 배경부터 이해해 제도의 차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연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각자 느낀 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내년 연수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천 원장 (대구)

이번에 연수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출중한 실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대구 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적인 정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우게 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여성정책 관련자들 워크샵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꼭 초청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진 서로간의 대화의 창구를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합니다.

□ 이현주 팀장 (충북)

제가 여러차례 해외연수를 나와 봤지만 이번처럼 공부도 많이하고 대화도 많이 했던 연수는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연수중에서 가장 최고의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이러한 해외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있는 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해외사례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여성정책을 다루는 각 지역의 기관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 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현실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충남)

이번 연수를 통해 호주의 사례에 대해 조금 깊이 접근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제도와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의 사례를 바로 한

국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해도 이곳 호주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같은 것은 한국에서도 응용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호주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국제화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성정책들을 하나 하나 배우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수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고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미희 본부장 (울산)

이번 연수는 호주의 사례를 배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국내 여성정책을 함께 다루는 분들이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모임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연수가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대화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라는 것이 비단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것을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연수단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나게 된 모든 분들과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정옥 대표이사 (경기)

저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세계 어느나라든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코를 방문했을 때, 그 자원봉사자에게 제가 왜 이런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엄마니까요’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현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기연구원 대표로 얼마나 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연수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임혜경 팀장 (경기)

이번 호주 연수는 저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곳 호주는 단순한 여성이 아닌 원주민 여성, 이주여성의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호주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연구주제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여쭙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얻으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송미영 실장(충남)

이번 연수에 저희 충남은 대구와 함께 4명이 참가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서로 도와주신 덕에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현지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중

요하지만 정착 국내에 있는 우리들끼리 소통창구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열심히 할테니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번 연수를 계기로 만난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연수단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정연정 대표이사 (서울)

이번 연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호주에 대해 제가 잘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같은 주제와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고 분야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성, 가족, 아동, 돌봄에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가 서로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분야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난 분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사진



△ 각자의 소회를 나누는 연수단

2023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IV. 만족도평가

□ 프로그램 만족도 : 비교적 만족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유사 연수의 성과 개선을 위해 6월 10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 했다. 전체 참가자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5명이 응답하였고, 70%이상이 '이번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2	1	1	6	5	15
비율	13%	7%	7%	40%	33%	100%

□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 대체로 만족

- '이번 연수의 프로그램 구성이 만족스러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27%,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47%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실제 학업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였다.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0	0	4	4	7	15
비율	0%	0%	27%	27%	47%	100%

□ 방문기관 주제에 적합성 : 대체로 적합

- '이번 연수의 기관 선정이 연수 주제에 적합했는가'라는 질문에 '적합했다'는 비율이 40%, '매우 적합했다'는 비율이 20%로 대다수가 방문 기관 선정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 다만 연수기관을 선정할 때 연수 참가자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기관의 운영 주체가 민간, 공관 등 다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매우 부적합	일부 부적합	보통	비교적 적합	매우 적합	합계
빈도	0	0	6	6	3	15
비율	0%	0%	40%	40%	20%	100%

□ 연수 인원 규모 적절성 : 만족

- '이번 연수의 연수 인원규모가 적합했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가자의 비율이 80%였다.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합계
빈도	0	0	0	3	12	15
비율	0%	0%	0%	20%	80%	100%

□ 연수 기간 : 보통

- 또한 '이번 연수 기간에 만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한 참가자의 비율이 70%로 대다수의 참가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0	0	5	3	7	15
비율	0%	0%	20%	20%	80%	100%

□ 숙소, 식사, 이동

- 숙소는 시드니 3성급, 브리즈번 및 골드코스트 4성급 호텔로 참가자 대부분이 보통 만족했으며, 식사는 와 교통편은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족했다.
- 인솔자는 노민호 전문위원이었으며, 참가자들은 대체로 평이하다고 응답했다.

[숙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0	0	3	6	6	15
비율	0%	0%	20%	40%	40%	100%

[식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0	1	2	8	4	15
비율	0%	7%	13%	53%	27%	100%

[교통]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0	0	2	1	12	15
비율	0%	0%	13%	7%	80%	100%

[인솔자 (노민호)]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빈도	0	3	9	3	0	15
비율	0%	20%	60%	20%	100%	100%

2023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국외연수

V. 참고자료 (별첨)

1. MDAA 발표자료
2. 노던센터 발표자료
3. 빅팀센터 발표자료
4. 피해자지원 메뉴얼
5. 여성역사협회 컬렉션 보고서 자료

